

논문 리뷰 - 이인혜, 2011, “어촌 여성금기의 변화와 지속: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하성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논평 I

점진적인 탈주술화: 「어촌 여성금기의 변화와 지속」에 대한 리뷰

이 수 유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한국 사회’라고 통칭되는 범위 안에는 사실상 서로 다른 시대적 요소들이 혼재하고 있다. 도시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더딘 농어촌 사회에서 이른바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나 관념, 신앙과 의례의 요소들 발견할 때 그러한 시차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 논문은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의 한 전업 어촌에서 여성들이 조업에 참가하게 된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서, 한 사회의 변화와 지속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연구 대상지인 서천 월하성리에서는 198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여성이 남성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저자는 여성에 대한 금기가 약화되고 해체되는 현상을 탈주술화(disenchantment)의 과정으로 파악함으로써, 이 현상을 사회경제적 변수로만 설명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또한 저자는 이러한 변화가 결코 모든 영역에서 급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변화의 면면을 세밀하게 살핀다.

“여자가 배를 타면 재수 없다”고 믿어지던 과거와 달리 “그런 것 지키면 굶어죽는” 것이며 “사치”라고 여겨지게 된 것은 여성의 조업 참가가 단순히 남성 노동력의 감소에 따른 필연적 결과가 아니며 특정한 문화적 과정을 수반하는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저자는 1900년대부터 최근까지 월하성리에서 이루어진 제반 사항들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 가운데 바다와 배, 조업에 대한 관념이 달라지고 금기가 약화될 수 있었던 일련의 조건들을 확인한다. 구체적으로는 조기에서 꽃게나 새우로 주요 어획종이 변화하면서 조업 구역이 먼 바다에서 가까운 앞 바다로 축소된 것, 기존에 사용되었던 목제 풍선(風船)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에프알피(FRP: 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로 교체된 것, 젊은 남성들의 이촌향도와 귀향으로 인해 기독교적 배경 혹은 합리적 사고방식을 가진 도시 출신 여성들이 마을로 유입된 것이 그에 해당한다.

저자는 특히 여성에 대한 금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례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탈주술화가 단순히 주술적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성속 구도를 바꾸어놓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과거에 바다에

서 고기를 잡는 데에는 개인의 실력뿐만 아니라 ‘운’, 즉 서낭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중요했고, 배의 돛대 부분에 실을 묶은 북어나 상자에 담은 실을 보관하여 신격으로 여겼다는 사실은 조업 자체가 신성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주요 어획종이 변화하고 선박이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 조업에 포함되어 있던 주술종교적인 부분이 탈각되었고, 결국 성스러움의 영역은 조업과 관련된 의례에만 한정되었다. 즉, 과거에는 조업과 일상이 각각 성과 속에 해당했기 때문에 속된 존재인 여성은 조업에서 배제되었으나, ‘생업으로서의 조업’과 ‘조업 의례’가 분리되면서 전자의 영역에 여성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성과 속을 구분하는 금기의 위치가 ‘조업’과 ‘일상’의 경계에서 ‘(생업으로서의) 조업 및 일상’과 ‘(조업) 의례’의 경계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로써 저자는 조업에서 해체된 여성 금기가 관련 의례에서는 여전히 발견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월하성리의 여성들은 과거와 달리 남편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심지어 선주 자격을 얻을 수도 있게 되었지만, 한 해 조업의 무사함과 풍어를 기원하는 할머니당제사 때에는 회관 안에 머무르며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만 참여할 수 있다. 선주가 된 여성 역시 직접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소지 올리는 일을 위임해야 한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일 자체는 완전히 세속화되었지만, 오히려 배와 바다의 신에 대한 관념이 작동하는 할머니당제사는 여전히 “여자가 여기 와서 저기하면 안 되는” 것, “여기는 남자들만 오는 데”로 인식되는 것이다. 비유컨대 실제의 바다에서 축출된 신들은 매년 음력 1월 7일에만 아랫당산의 당집으로 초대받는 것이며, 이때 성과 속을 가르는 경계가 다시 출현하면서 여성들의 출입이 금지된다.

가정 단위에서 지속되는 뱃고사는 금기가 해체된 영역과 지속되는 영역, 즉 생업으로서의 조업과 마을 규모의 조업의례 사이의 과도기적인 이행 과정을 보여준다. 과거에 뱃고사는 선주가 제관이 되어 함께 일하는 뱃동서들과 지내는 남성들의 의례로서 성대한 마을 행사의 성격을 가졌지만, 중선 어업이 중단되고 조업의 단위가 부부로 축소되면서 소규모 가정의례로 축소되었다. 또한 새롭게 바뀐 에프알피 선박에는 서낭이 없거나 그 힘이 약해졌다고 믿어지면서 뱃고사 자체의 중요성도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현재 뱃고사는 일부 가정에 한해서 매년 선달 그믐날 저녁 5분 정도로 간략하게 진행되는데, 남편이 배를 정화하고 제물을 올리는 동안 여성은 배에 오르지 않고 배 밑에서 손을 모은 채로 서서 기다린다고 한다. 즉, 뱃고사에서 여성의 금기는 다만 약화된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성속 구도의 변화 혹은 탈주술화의 과정이 한 사회 안에서도 영역마다 상이한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변화의 양상을 한층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과 속, 그리고 금기가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한 남성 제보자는 여성들이 조업에 참여하기 시작하던 당시에 “다른 집 여자들도 다 타는데 왜 너만 안 타냐. 우리 집 굶으면 다 니 책임”이라며 부인을 독촉했다고 회고하는데, 이로부터 전반적인 변화를 조명할 때 간과하기 쉬운 개인들의 주저함 혹은 망설임의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월하성리의 경우 근대적 혹은 합리적 사고방식은 법이나 교육에 의해 일률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직간접적 경험과 외부와의 접촉, 소문과 눈치, 혹은 분위기로 일컬어질 수 있는 다소 비정형적인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는 탈주술화의 과정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개별 구성원들의 성격과 태도, 그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한다.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개별 구성원들이 집단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한 변화 과정을 겪은 인근 마을에서는 여전히 여성 금기가 유지된다는 현상도 일정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논문은 어촌 여성금기의 변화와 지속에 주목함으로써 급진적이기보다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서로 다른 영역 혹은 지역에 따라서 상이한 속도로 나타나는 실제 탈주술화의 양상을 확인시켜준다. 이는 비단 월하성리 혹은 조업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내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진 변화의 과정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한 관점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자로서 제언하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금기에 대한 관념이 단순히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일 수 있음이 보다 명료하게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테면, 할머니당제사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금기 때문만이 아니라 행사의 남성 중심적 성격이 강화되는 상황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의례에서 여성 금기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은 금기 자체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인 실천 규범으로 준수되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는 탐비아의 논의에 기초하여 근대화 과정에서 주술과 약학, 철학과 달리 종교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지식으로 규명하거나 논쟁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뱃고사와 할머니당제사의 경우 신앙으로서의 종교뿐만 아니라 의례 자체의 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여성금기의 변화와 지속 전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금기의 적용 영역이 축소된 현상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각각 성과 속에 해당하는 존재로 간주하는 것, 즉 여성을 '재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관념 자체가 약화되었음이 함께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조업의 탈주술화와 병행하지만 그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 논평 II

가족주의적 고용형태라는 관점에서 본 여성금기의 변화와 지속

이 수 현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

1. 들어가기

이 논문은 시대에 따라 한 어촌의 남녀노동의 변화를 조망하며, 조업 관련 금기의 해체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조업 방식이 변화하면서 여성노동력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조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여성에게 부여되었던 금기가 일부 해제되었던 것이다. 조업 방식의 변화에는 물리적 도구의 변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배가 망선, 커다란 목선에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플라스틱 배로 바뀌고, 그물을 끌어당기는 일의 자동화가 일어났다. 이와 함께 조업을 근해에서 실시하게 되며 노동력의 이용 양태가 변화하였다.

저자는 조업 과정이 변화하는 물리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조업에 참여하는 개별적인 주체들의 문화적 배경을 또한 주목하고 있다. 조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문화적 배경이 변화하며 조업에 여성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금기가 약화되었고 이는 여성의 노동력 동원 방식을 보다 적극적인 양상으로 변화시키며 다시 금기의 해체에 기여하였다. 도시에서 일용직 생활을 하다 다시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과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들어온 외부 인구는 어촌의 여성배제에 대한 금기에 크게 구속되지 않았다. 이들은 여성노동력이 적극적으로 조업 과정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 리뷰는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 노동력의 동원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업에 여성이 참여하는 양상은 마을 단위에 가까운 단체 작업에서 가족 단위의 작업으로 축소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다. 즉, 여성의 조업 참여는 어업의 가족화 과정 속에서 나타났으며 가족 단위의 조업에서 조업이 '지속되기 위한' 조건은 동원 가능한 노동력을 최대로 동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조업의 지속 가능한 조건은 금기를 지키는 것이었다) 저자는 서로 다른 속도로 해체되고 있는 어촌 금기에 대해 그 물리적인 조건과 문화적인 배경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때 금기의 해체를 가속화하고 있는 동력이 가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제적 기회추구에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한다.

2. 해체되는 금기와 여성의 조업참여

논문은 단순히 어촌의 인구변화와 이로 인해 발생한 노동력의 공백을 여성 노동력으로 채우

게 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의 조업참여에는 조업의 의례적 성격이 약화되는 과정이 수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조업과 관계된 금기는 조업 자체와 결부된 금기와 조업 의례에 대한 금기로 나타나고 있다. 조업 의례는 뱃고사와 할머니당제사로 다시 나누어볼 수 있다.

여성의 조업참여에는 조업에 사용되는 배와 어획종의 변화가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1900년대 초반에 사용되던 망선에는 20여명의 장정이 배를 탔으며 조기를 잡는 여정은 3개월에 달했다고 한다. 조기 개체수의 감소로 주요 조업이 망선에서 10여명이 타는 중선으로 변화하였고, 이후 보다 작은 목선으로 4명이 타는 풍선(風船)으로 변화하였다. 결정적인 계기는 배에 기계엔진이 장착되고, 배 자체가 플라스틱 선박으로 교체되는 과정에 있었다. 이제 조업은 두 명의 숙련된 노동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되었고, 조업 기간은 한 나절 남짓으로 축소되었다.

‘두 명의 숙련된 노동력’은 별도로 고용한 임노동자에 의해 채워지기도 했지만, 부인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방법은 인건비로 지출되는 돈을 줄일 수 있었다. 도시생활을 경험해본 적 있는 여성들은 맛벌이가 익숙하였으며 어촌에서 일할 방법을 찾았다. 남편과 함께 하는 조업은 그 해결책이었다. 맛벌이가 익숙한 도시 출신 여성들은 게으름을 새로운 ‘금기’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기독교인들 또한 조업에 관련된 금기를 미신으로 치부하며 조업 금기를 해체하는데 기여하였다.

여성의 조업참여는 조업 자체와 결부된 금기가 해체된 결과이며, 나아가 뱃고사는 가정의례로 여겨지게 되었다. 뱃고사를 지내는 것은 “뱃동사를 달래고 화합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지만(이인혜 2011: 59), 부부 중심의 조업에서 이는 굳이 필요 없는 일이 된다. 뿐만 아니라 배에 타는 남성의 안전을 기원하는 용왕제의 필요성도 감소한다. 부부가 함께 조업을 하면서 불안감이 감소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이인혜 2011: 61). 한편 할머니당제사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금기요소를 가지고 있다. 여성은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접대하지만, 제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성이 할머니당제사에 관여하게 되는 지점이 발생하는데, 이는 여성이 가지게 되는 ‘선주’로서의 지위와 관련된다. 할머니당제사에서 선주는 소지를 올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배의 교환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에 붙은 어업 허가를 쪼개는 과정에서 여성은 선주의 지위를 얻었다. 이에 따라 할머니당제사에서 여성은 선주로서 참여할 수 있으나, 여성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고 소지만 올리는 ‘모순적인’ 위치에 처한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조업 금기가 서로 다른 속도로 해체 혹은 약화되는 이유를 조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금기가 해체되는 원인을 노동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시도로 설명(유보경 2005)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문화적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3. 가족주의로 드러나는 조업 풍경 변화

조업과 조업의례 전반에 한 때 자리 잡고 있었던 여성에 대한 금기가 변화하는 양상을 포착하였다는 점이 논문이 가지는 의의라고 한다면, ‘여성 노동력’이라는 틀은 논문이 포착할 수 없었던 지점을 드러낸다. 월하성리에서 조업이 운영되는 방식은 그 동안 마을 규모에 가까울 정도

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방식에서 가족 단위로 변화하였다. 즉 배가 20여명이 타는 망선에서 2명이 타는 플라스틱 선박으로 축소되며 인력 운용이 마을 내외부의 사람들을 고용하는 방식에서 자가 고용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즉,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력의 공백을 여성이 '기계적'으로 채운 것은 아니었으나, 고용 형태가 변화하였던 것이다. 3-6개월가량의 고용은 보다 단기간의 임노동으로 변화하였고 나아가 배를 소유한 사람들의 자가 고용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고용 형태의 변화는 논문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여성금기'의 해체 과정과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인 설명에 머무르고 있다.

조업 과정에서 노동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배를 소유한 선주가 여러 명의 뱃동서를 고용하는 데에서 점차 피고용자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는 가족 단위로 축소되어 자가 고용의 형태를 보인다. 여성의 노동력은 이 과정에서 등장한다. 즉 여성 조업인은 이전의 뱃동서들과 달리 노동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고 고용된 것이 아니었으며 가족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조업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월하성리의 조업 양상은 차라리 한 명의 남성 생산자를 중심으로 축소되었다고 생각해 볼 여지도 있겠다. 부인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은 이 개인 사업자의 수익구조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가족농이 농업생산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의 노동력을 생산의 핵심적인 요소로 가지고 있는 양상(Chayanov 1966)이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즉, 여성 노동력의 도입은 가족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촌 가정의 전략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조업의례에 있어서 금기의 약화 역시 위와 같은 고용 형태의 변화 속에서 볼 수 있다. 선주가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때 뱃고사는 뱃동서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잔치'의 기회였다. 즉 피고용자에게 뱃고사는 일종의 복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플라스틱 배와 함께 조업이 자가고용의 형태로 변화할 때, 좋은 식사라는 이 복지제도는 가내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의례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 된다. 반면 할머니당제사의 경우 여러 명의 선주가 함께 준비하는 의례이며 가족 내부의 일이 아니다.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의례를 준비하기 때문에 기존의 금기는 남아 있다. 이 때 여성 선주가 가지는 모순적인 지위는 다시 한 번 조업이 가족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해준다. 가족 단위의 조업이 남성 선주를 중심으로 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 선주는 보조적인 위치로 등장하는 것이다. 여성이 어업허가를 취득하는 것은 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월하성리의 조업 금기는 '고기가 많이 잡히게' 기원하는 데에서 가족의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데까지 그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풍어를 기원하고, 또한 보장할 수 없는 먼 바다에서의 안전을 바라는 조업금기는 여러 명의 뱃동서가 조업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용 형태가 변화하며 언뜻 변화한 것처럼 보이는 금기는 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동일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4. 나가기

월하성리에서 조업에 사용하는 배가 변화하고 조업 품목이 변화하면서 어업은 가족화의 경향

을 보이고 있다. 가족화의 양상은 자가 고용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인건비 지불을 줄이기 위한 여성의 조업 참가를 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조업 금기는 해체되고 있으며, 조업의례 중 일부는 사라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조업의례를 수행하는 집단이 마을 전체에서 부부로 축소되며 그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는 것이다. 부부 중심의 조업에서 뺏고사와 같은 의례는 수익을 증가시키는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통 의례의 유지에는 이를 수행하는 공동체의 존속이 자리하고 있다. 여러 명의 선주가 함께 치르는 할머니당제사에 여성 금기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이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월하성리의 전통의례의 변화와 지속 양상은 나아가 조업의 가족화 경향이 마을 단위의 공동체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이 논문이 다루고 있지 않은 마을 내부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다른 민족지 자료와 결부하여 조업의 가족화와 마을 공동체에 대해 비교해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 유보경, 2005, “어촌마을의 경제구조와 성별노동의 변화: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259-297.
- 이인혜, 2011, 『어촌 여성금기의 변화와 지속: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하성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hayanov, 1966, *The Theory of Peasant Economy*, Homewood: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 저자 답변

이 인 혜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수료,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2009년 6월이었다. 매우 무더웠고, 습했으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가담한 직후였다. 당시 연구자는 서울의 무속에 관심이 있었으며, 새로 참가한 프로젝트 역시 서울 북부의 굿당에 대한 연구였다. 세부적인 주제로 어떤 것을 쓸 것인지 정해 놓았고 그것에 대하여 석사논문을 쓰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상태였다. 그렇게 생각하며 굿당에 처음 방문하고 10일 후, 연구자는 충청남도 서해안의 어느 마을에 와 있었다.

어찌다가 바닷가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는 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므로 차후를 기약하기로 하자.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한국의 해안지역 연구에 대하여 교재를 제외하고 별다른 글을 읽어보지 못한 상태로, 또한 무엇을, 어떠한 눈으로 보아야 할지도 결정하지 못한 채 그 곳 사람들도 ‘감옥’이라 불리는 마을에 푹 떨어져 버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지점이 리뷰에 대한 답변에서 가장 중요하다.

당시의 연구자는 나름의 궁금증이라던가 문제의식이 전혀, 아주,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가방 하나 매고 현지에 도착하였다. 연구자가 있었던 마을 역시 옆 마을이나, 그 옆의 옆 마을과 마찬가지로 너무 평범해서 특이할 정도로 평범한 그런 어촌 마을이었다. 단 하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고전적인’ 민족지를 써 보고 싶다는 소망뿐이었다. 무엇이 고전적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마을에서 연구를 해서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가 들어가고, 그 안의 종교생활이라던가 경제생활(생업), 정치적 행위들, 가족관계 등등이 모두 들어간 글을 생각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인 민족지적 자료 중 가장 재미있어 보이는 것(이라 쓰고 쓸 만 한 것이라 독해한다)을 석사논문으로 써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편하게(라 쓰고 안이하게라 독해한다) 생각했었다.

연구를 마치고 쌓아 놓은 데이터를 훑어보니 처음에는 배를 둘러싼 사람들 사이의 경제적 행위와 그것에 대한 의미부여가 재미있어 보였다. 그래서 그렇게 썼다. 결과는 낙방. 한 달 쯤 방황하다가 다시 데이터로 돌아갔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현상이 눈에 보였다. 그 결과물이 이수유 동학과 이수현 동학이 리뷰한 논문이다. 데이터를 먼저 광범위하게 쌓고 논문을 썼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풀어 쓴 까닭은 분명 한 사람이 쓴, 하나의 논문을 리뷰했을 뿐인데 두 사람이 판이하게 다른 현상을 읽어냈다는 사실이 가장 흥미로웠기 때문이다.

먼저 이수유 동학은 다른 동학들이 연구자의 논문을 따로 읽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리뷰를 작성하였다. 이 말 이외에 따로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 이 논문은 고기잡이에 참가하는 여성들과 금기를 통해서 성숙 구도의 변화, 탈주술화의 과정이 한 사회 안에서 영역마다 상이한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수유 동학은 이를 두 페이지 만에 압축하여 요약하였다.

이수유 동학의 ‘금기에 대한 관념이 단순히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논리일 수 있다’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구자가 있었던, 그 시점의 마을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수유 동학은 ‘이렇게 하면, 할머니당 제사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금기 때문이 아니라 행사의 남성 중심적 성격이 강화되는 상황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확실히 할머니당 제사 등 의례는 남성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는 하나, 여성들이 그 의례에 직접 참가하고 싶어하는지를 질문한다면 그 당시의 대답은 ‘아니다’였다. 연구자 역시 이 지점이 궁금했기에 여성 선주에게 ‘왜 직접 소지를 올리지 않느냐’고 질문했었는데, ‘추워서’라고 대답했었다. 그가 참가하지 않은 까닭은 참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참가를 금하는 금기에 음력 1월 7일, 찬바람이 부는 바닷가에서 자기의 순번이 돌아올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싫다는 의견이 더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금기는 이론적으로 남성들만 참가하는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논리이기는 하다. 그러나 연구 시점까지 마을 안에서 그것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수현 동학의 리뷰는 연구자가 논문에 서술한 데이터를 토대로 다른 틀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이수현 동학은 논문에서 인력의 동원방식이 자가고용형태로 변화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여성노동력’이라는 틀을 통하여 논문을 분석한다. 변명하자면, 당시의 연구자는 ‘여성’과 ‘노동력’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으며, 금기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규범으로서 지키는 현상을 포착하고자 했다. 따라서 금기가 변화하며 지속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것의 부차적인 배경으로서 노동력의 형태 변화를 서술하였다. 다만, 이수현 동학의 리뷰를 보면서 여성 노동력이라는 틀을 사용함에 따라 같은 재료라도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감탄하였다.

이수현 동학은 리뷰의 끝에서 여성 노동력의 동원을 ‘조업의 가족화 경향’이라고 서술하였으나, 여성의 참가를 ‘가족화 경향’이라 확대서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자는 의문을 제기한다. 연구자가 있었던 마을에서는 부부가 짝을 이루어서 조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남편과 부인 이외의 다른 가족이 조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50 가구 중 단 한 가구에 불과했다. 오히려 여성이 조업에 참가하기 이전, 그리고 남성들이 도시로 떠나기 이전에는 다른 노동력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조업에 참가하였는데(2장), 그렇다면 이는 가족화 경향이라 볼 수 없는 것일까. 노동력의 동원 방식이 변화하였다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어쩌면 가족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로는 볼 수 없을까.

보잘 것 없는 논문을 훌륭하게 리뷰(포장)해 주신 두 분 동학께 감사드리며, 아울러서 리뷰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앤쓰로피아 편집팀께도 감사드립니다.